**문제상황:**

**대가족->핵가족, 이혼율,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원래부터 방과후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꾸준한 공급부족현상을 보였다.**

**이전의 공적돌봄과 사적돌봄(사교육 포함)으로는**

**충분히 해결이 안되던 차에,**

**코로나로 인한 아이방치시간(?) 증가, 육아고통 증가 등**

**문제가 계속 커졌다.**

이미 그래서 행안부에서 어떻게할건지 이미계획이 나와있고,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지 문제제기 할수 있어야해.

이쪽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우리 생각에 권위를 더하는건 어떨까 사회복지전공쪽사람들이 하면 logical하다.

공신력을 줘야해

General한 needs를 가진 일반인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지인중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접하고 있어 이런식으로 풀어가야 대중적 공감을 가질수있어.

그리고 그래서 전문가와 접촉해봤어.

키움센터운영센터장/이쪽관련된 전문가와 연락해보고, 우리를 소개하고, 최적입지 선정에 대해 우리가 이런고민을하고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이런식으로 계획세우고있고, 이런점에서 문문제될 것 없는지, 타당한 실행계획인지, 현업에서는 그게 탁상공론에 아무것도알지도못하는것들이 그냥 계획만세운건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행안부보다 더 설득력있고, 도움된다는 어필을 해주면 좋아.

비타500 사들고 가서 얘기해보는건 어떨까..

학교중심이 타당한지? 이런것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면 좋아. 공신력이 확 올라가고, 우리가 노력한 것이 되니까.

***키움센터 직원과 지인이신 알디노선생님과 지인인 우리***

윗사람의 의견을 들어야하니까… 우리선에서 알아보기.

**당신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행안부블로그에서 했던 그런게 없었으면 우리가 하는게 괜찮은데… 이미 블로그에 공개하고 기준이 나와서…**

**결국, 우리아이키움센터를 충분히 공급해야겠지만,**

**어디에 먼저 설치해야 하는지 정하기 힘들었고,**

**우리의 최종목표는:**

**학교별 돌봄필요지수를 산출해서**

**필요지수가 높은 학교가 많은 행정동에 우선해서 설치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우선 당신이 학부모라면,**

**아이가 방과후에 ‘학교근처’ 안전한곳에서 머물다가**

**퇴근시간에 맞추어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길 원할 것이다.**

**즉, 학교 근처 일정 범위에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몇 개가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아이가 운동이나 공부 등 자기개발을 하기 원한다면,**

**학교 근처 공적/사적돌봄보다 학원을 우선해서 찾을것이고**

**원만한 교우관계, 다양한 체험등을 원한다면,**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방과후학교, 공적/사적돌봄센터를**

**찾아볼 것이다.**

**즉, 초등학교 전교생수, 맞벌이여부 등이**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된다면,**

**학원/방과후학교/돌봄센터가**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된다.**

**이들을 가중치를 주거나 비율로 정리하고**

**하나의 식을 만들어서**

**한 학교의 돌봄필요지수를 제작해 볼 수 있다.**

**(타당성검토필요)**

**돌봄수요는 소득수준에도 영향을 받을텐데,**

**소득수준이 높으면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는**

**기사/상관관계/통계결과등이 있다면**

**집값이 높은 지역/소득수준이 높은 지역들의 학교는**

**근처 학원 개수에 가중치를 더해서 계산하는 등**

**식을 보강하고 타당성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지수가 계산되고나면,**

**각 학교별/행정동별/구별 돌봄필요도가 시각화되며**

**동끼리 번갈아가며 선정해주는 등 기준을 세우고**

**(너무 하나 동의 몇 학교에만 몰리는 것 방지)**

**그렇다면 ‘어떤 장소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키움센터 기준을 적용해줘도 괜찮고,**

**이미 구한 어린이집/복지시설/체육센터 등의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며 ‘후보군’이라고 내세워도 될듯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우리지역에 돌봄센터가 너무 적다”라는**

**누가누가 수요조사 많이 참여해서 선정되나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필요지수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선정방식을 서울시에 추천할 수 있다.**